

2018 Winter Semester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산업공학과 정연준

수학 기관: TU Graz (Austria)

교환학생 신청부터 교환학생 끝까지 간단히 알아야 할 정보들을 위주로 적어보았습니다.

0. 교환학생 준비 전

졸업반, 취업 준비를 앞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고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무얼 하고 싶어하는 지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환학생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영어 실력 향상도 하나의 큰 이유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면서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경험을 언제 마음 편하게 해볼 수 있을까, 질문해본다면 대학생으로서는 교환학생만큼 좋은 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목적이 되었던 간에, 교환학생 기간 동안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고민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을 하면서 가장 크게 후회했던 점은 더 빨리 갔다 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게 맞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영어 성적일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 분들은 이런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까 적어봅니다.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신청기간이거나, 마감이 임박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영어성적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교환학생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게 교환학생 신청을 몇 학기 미뤘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영어 시험을 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2차, 3차의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공대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영어 성적을 요하는 대학이 높은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몇몇 대학들은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시고 보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공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서 저는 그래도 영어를 많이 쓸 것 같은 유럽 권을 선택해야 했었고, 영어 성적을 받는 대학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여행하

기가 좋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를 1지망으로 신청하였고 운이 좋게도 붙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TU Graz는 실제로 교환학생을 와보았을 때 단순히 저런 이유로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선택할 이유가 많은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유럽권을 생각하신다면 꼭 오스트리아 TU Graz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교환학생 준비기간

교환학생 신청에 성공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권은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결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TU Graz의 경우에는 타 대학에 비해 훨씬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는 무언가 빨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잘못되지는 않을까 조바심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담당자가 한 일주일 여행을 갔다고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답이 늦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답답하시면 그냥 재촉 메일을 보내면 답장은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함을 달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할 문서 같은 것들은 오스트리아 TU Graz같은 경우, 굉장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돼있기 때문에 TU Graz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workflow만 잘 따라 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Workflow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있고,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문서를 준비해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에는 업로드를 잘못했는데 파일 수정하는 버튼이 없어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었지만, 메시지 혹은 메일 보내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메시지만 보내시면 원만히 다 해결됩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에 설명 같은 것들이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예매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증을 대부분 발급하셨을 테니 KISES에서 제공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스카이스캐너로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 KISES에서 제공하는 항공편은 학생을 위한 항공편이기 때문에, 스카이스캐너에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항공편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웬만하면 KISES에서 먼저 항공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항공편을 예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가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굉장히 조금 챙겨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적게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짐이 많아지는 이유는 한국음식을 챙겨 가기 때문인데, 한국음식 그림기도 하지만, 사실 한인 마트나 아시안마트가면 웬만한 한국음식 재료들은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 해먹으면 됩니다. 요리 실력도 늘리고, 짐 무게도 줄이고 1석 2조입니다. 다만 국 끓여 먹는 건 정말 힘들고, 또 밥 먹을 때 국 없으면 가끔 서럽기 때문에, 오투기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블럭 국은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들고 가면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음식이던 옷이던 상관없이 그냥 짐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택배로 부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보기엔 비싸 보이지만, 무거운 짐 들고 다

니다 보면 내 한 몸 고생하고 돈 아껴내겠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끝없이 한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택배 그냥 비싼 돈 주고 부치시고 가서 관광지에서 외식 한번 덜하십시오.

기숙사의 경우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TU Graz는 자체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Graz내에서는 여러가지 기숙사 제공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기숙사를 많이 신청합니다. 대표적으로는 OEAD, WIST, Home 4 Student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귀찮은 걸 딱 싫어해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OEAD에, 가장 교환학생이 많다는 Neubaugasse (누이바오가세) 기숙사를 신청했었습니다. 저는 2인실을 썼기 때문에 한달 315유로였지만 1인실은 아마 그것보다 한달 80유로 가량 더 비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OEAD는 <https://housing.oead.at/en/> 홈페이지에서 가격, 시설 등을 아주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제가 가봤던 다른 기숙사로는

home4students에서 운영하는 Neutrogasse(<https://www.home4students.at/en/living/dormitories-graz/179-studentenheim-neutorgasse/>) - 제 기억으로는 건물 내부가 가장 아름답고 예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방이 층 공용이었던 걸로.. 1인실 달 365유로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찾아 보니 주방이 딸린 방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비쌉니다. 이곳도 생각보다 교환학생이 많이 거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Wist에서 운영하는 Moserhofgasse 20/22 (<https://www.wist-steiermark.at/wordpress/en/student-residences/>) - Wist 홈페이지는 사진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싸다는 점.. 달 300유로가 안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왜 싼 지는 알만 합니다. 주로 교환학생이 아닌 현지학생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AD에서 운영하는 Moserhofgasse (https://housing.oead.at/en/accommodation/details-en/details?view=application&object_id=149) - 싱글룸이 달 400유로가 넘었던 거 같은데 돈 값합니다. 보통 기숙사들은 공용으로 물건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편하고, 위생에 있어서 짜증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는 처음에 입주할 때 개개인으로 새로 식기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플랫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OEAD에서 운영하는 Steyrergasse (https://housing.oead.at/en/accommodation/details-en/details?view=application&object_id=151) - 무난한 기숙사 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살았던 누이바오가세 기숙사와 가장 비슷했습니다. 가격도 똑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공대 캠퍼스 중 하나인 노이테크닉 바로 옆에 위치해있고, 알테테크닉과도 가까워 그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지리적으로 아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숙사 입주하기 전부터 어떤 수업을 어디서 듣게 될지 결정하는 경우는 없으니 운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가 살았던 누이바오가세 기숙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좋은 점은 바로 주변에 hofer, spar, billa 세개의 마트가 다같이 모여있다는 점, 중앙역과 가깝다는 점 (중앙역 근처에 헬스장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거주자가 교환학생이라는 점(그만큼 채팅방도 활성화 되어 있어 정보를 주고받거나, 파티를 자주 열어 초대한다거나 등 교류에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입니다. 단점은, 학교와 생각보다 거리가 멀다는 점, 교환학생이 많은 만큼 밤에 시끄러울 때도 많다는 점, 전 기숙사에 빨래 세탁기가 2개밖에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많이들 이용하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냥 고민 안하고 싶으시면 Neubaugasse 기숙사 등록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멘토 신청도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멘토 바이 멘토긴 하지만 초반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도착하자마자 키 픽업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반에 대한 팁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멘토신청 까먹지 마시고 하시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멘토가 한국을 교환학생으로 방문했던 2명의 오스트리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김치담그기, 한국 음식, 피자 라자냐 등 같이 음식도 해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한학기 내내 외로울 걱정은 없으니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교환학생 시작

오스트리아에 도착해서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해주시는 대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Orientation은 꼭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몇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여행을 갔다가 온다고 orientation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문제없이 모든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만 뒤늦게 혼자서 이것 저것 하려다 보면 외롭고 어리둥절할 수 있기 때문에 Orientation에 참석하셔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모든 작업들을 처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City residence confirmation, GKK insurance, New account 등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을 요하는 데, 꼭 필수인 작업이니 기한에 맞춰서 꼬박꼬박 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비용, GKK 보험 비용은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다 내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내시고 매달 고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가끔 언제부터 가격을 변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몇번째 달까지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요금 청구로 날아오는 메일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학기 시작 전 독일어 수업은 꼭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적인 독일어가 생활에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지만(예를 들어 숫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만큼 매일매일 똑같은 친구들을 볼 기회는 그 이후로는 드물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것이 친구를 사귀기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업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수업 신청은 TU Graz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등록들이 완료가 되고 business card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여기서 business card는 마이스누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urse registration 섹션에서 수업 검색,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확인, 수업 신청 기간, 수업 신청, 수업 신청 취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ientation에서 다룹니다. 이 부분 설명에서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절대 즐기 말고 집중해서 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신청하는 기간은 수업마다 다릅니다. 수업 신청 기간은 강의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원하는 수업은 꼭 그 날짜와 시간을 스케줄에 등록해놓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인기있는 강좌는 수강신청이 풀리는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로 해야 waiting list에 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업신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waiting list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고, 첫수업에 참석한다면 대부분 fixed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waiting list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설명에는 previous knowledge 등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고 원하시는 수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산업공학과) 관련 수업들을 듣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수업이 1주일 내내 하루 종일 혹은 2주일 내내 하루종일 강하게 집중해서 수업하는 intensive course였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하루 종일 집중해야 하는 피로감이 더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오랫동안 한번에 가르쳐서 전체적인 맥락 이해가 쉽다는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intensive course를 듣는 만큼 수업이 없는 날도 많아져서 여행다니기가 좋다는 점이 최고 강점 인건 비밀입니다.

TU Graz, Uni Graz에서는 스포츠 코스도 운영합니다. 스포츠 코스는 말 그대로 스포츠 수업인데 이걸 따로 돈 내고 들어야 하는 수업이지만 그 금액이 30유로 정도로 굉장히 적고, 수업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주짓수, 트램펄린을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다 2번 정도 나가고 그만두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시간이 저녁에 있고, 하는 장소도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여행도 중간중간 다니다 보면 중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반에만 나가고 그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귀 친구 중에서 끝까지 나간 친구는 없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듣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신청해서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 스포츠 코스는 뭘 들을지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2개를 수강 취소하였었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 고민의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취소는 2번째 수업 전까지만 가능하고, 수강 비용의 80퍼센트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하나당 6유로 정도는 날아가는 걸 감안하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라츠 내 이동에 있어서는 자전거를 강추합니다. 그라츠는 대부분 맑은 날씨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맑은 날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을 맞는 기억은 유럽생활 중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전에 교환학생을 지냈던 학생들로부터 전달받거나(물론 중고로 사는 겁니다), Willhaben같은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꽤나 신뢰있는 중고장터입니다), 학기 초 열리는 중고 자전거 장터에서 구입하거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다시 되돌아갈 때 팔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것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탈 때에는 생각보다 주의할 점이 많은데, 밤에 다닐 때 앞에 흰색 라이트를, 뒤에는 빨간 라이트를 키고 달려야 합니다. 자전거 자체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flying tiger와 같은 shop에서 5유로 정도 주고 라이트를 사서 다는 걸 추천합니다(대신 이런 라이트는 가끔 아주 가난한 다른 교환학생들이 훔쳐가기도 하므로, 자전거를 보관할 때에는 라이트를 꼭 빼서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자동차 도로로 달려야

하며, 어떤 특정 지역은 아예 보행자도로로만 지정되어 자전거가 못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규범이 항상 감시되거나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경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저는 보행자도로에서 타다가 20유로를 냈습니다 π)

혹시 자전거를 타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더운 여름날 혹은 추운 겨울날 타기 싫으신 분들은 트램을 타시면 되는데, 트램을 타시려면 꼭 정기권을 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은 정기권을 끊으면 그만큼 다 못 탈까 봐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권을 사라는 이유는, 1회용권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보통 트램을 타면 사용권이 있는지 검사를 잘 안하고 아주 가끔가다 하기 때문에 1회용권을 매번 사서 타겠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사서 타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검표원에게 걸려서 벌금 내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금을 낼 바에야 그냥 정기권 한번 사고 마음 편하게 타시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저는 쾰보라 매번 꼬박꼬박 사긴 했지만, 트램 무료구간 (kunsthaus부터 jakominiplatz까지)보다 한 정거장만 더 가야 하는 경우 살까말까 항상 유혹의 손길이 뻗쳐왔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한정 거장 정도야 하다가 걸린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트램 타실 때는 표를 사시기 바랍니다.

해외 계좌의 경우 저는 N26을 썼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좌 개설도 쉽고 이체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돈을 입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에 해외 송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보내고 그걸 쓰는 형식으로 해야합니다. 오프라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 현금으로 입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현금인출을 한 후에 해외 계좌에 넣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계좌를 쓸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보험비 납부 혹은 기숙사비 납부 두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N26같이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보험료와 기숙사비만큼만 해외송금 하고 이체 용도로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일상 생활은 하나비바체크카드같이 수수료가 적은 카드를 써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행의 핵심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안세우고 즉흥적으로 다니면 돈걱정만하다가 여행을 못 가거나 여행기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꼭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저처럼 돈 날리지 않으시기를 ππ 여행을 다닐 때에는 이동 수단으로, 먼 국가는 비행기, 가까운 국가는 플릭스버스 혹은 OBB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건 플릭스버스인데 플릭스버스는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보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라이언에어는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대신 원하는 기간을 찾기가 어렵고, 미리미리 항공편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야합니다)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여행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을 점은, 거의 매주마다 ESN에서 ESN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술집에 모이는 Regular table부터 시작해서 와인 투어, 스키 투어(겨울), 등등 여러가지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굉장히 탄탄하고, 식사도 괜찮고,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기 때문에 꼭 가는 것을 강추합니다.

3. 교환학생 끝, 돌아갈 때

City residence 등록했던 것처럼 취소하면되고, GKK 보험도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났다면 취소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계좌도 닫으시면 됩니다. 다하셨다면 workflow에 등록까지 하시면 모든 게 완료입니다.

기숙사 처음 신청할 때 보증금 750유로 정도 넣어야 하는데 보증금은 기숙사 만료될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695유로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은 방 key와 여권을 들고가면 수표를 주는데 이걸 Austrian Bank라는 은행에 들고가면 현금으로 바꾸어 줍니다. 보통 거기서는 이메일로 계좌번호 입력하면 거기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해외계좌여야 하고 입금까지 2~3주 넘게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걸 추천합니다. 현금 받아서 마지막 여행에서 즐거이 쓰시다가 돌아가시면 기분 짱입니다.

4. 교환학생을 끝마치며

사실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느냐 물으면 완전히 만족한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었던, 내 진로에 대한 고민, 영어실력 향상 등 제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열심히 외국인들과 어울릴 걸, 침대에서 빈둥대는 시간을 좀더 줄이고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느껴볼 걸 하는 후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후회가 되도록 빈둥거리고,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학생 생활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저에게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련의 경험들은 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많은 기업, 기업가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면서, 진부한 표현이지만,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 안에서 주어진 것들만 하던 제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더욱더 채찍질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교환학생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동기부여, 의지를 키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하면서 쌓은 좋은 추억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환학생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공대 대외협력본부에 감사드립니다.